

역사의식의 결여와 민중 모독 —이문열 중편 〈칼레파 타 칼라〉의 경우—

장 양 수*

1. 줄거리=어리석은 시민들의 妄動・暴舉로 회랍 도시국가 아테르타가 멸망하게 된 과정이 그 경계다.
2. 이 소설의 특성
 - (1) 이 소설은 한편의 역사적 정치적 알레고리 소설이다. 알레고리란 표면적 이야기와 그 저변에 있는 제2의 이야기를 동시에 읽게 하는 언어의 암유적 용법인 바 역사적 정치적 알레고리란 逐字的 의미에서의 인물이나 행동이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의미하거나 풍유하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아테네는 자유민주주의 강국으로 70년대 당시의 미국, 스파르타는 전체주의 체제의 나라로 70년대 당시의 북한을 연상하게 한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란 이름의 일부를 따 합성한 「아테르타」란 국명은 정치편의주의적 기형체제 유신정권을 암유하고 있다. 또 은감대는 대통령 경호실, 신성대는 특수 정보기관, 시민집단의 시위는 데모, 친스파르타 구호는 좌경용공 구호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 (2) 〈칼레파 타 칼라〉는 알레고리가 풍자란 또 하나의 양식과 결합되어 있는 소설이다.
3. 문제점
 - (1) 사건 설정의 造作性=과민한 지식인의 의구심이 위기를 급조하여 그것이 민중봉기에 이어지고 그리하여 체제가 붕괴된다는 것은 진실과

* 동의대 교수

거리가 먼 거짓된 이야기 설정이다. 민중 봉기는 과도한 징세, 가혹한 노역 등 지배층의 秕政·虐政에 견디다 못한 피지배층의 말없는 공감에 의해 일시에 분출 폭발하는 힘이다. 그것은 민중의, 목숨을 내건 마지막 항거다. 이 소설에서는 그런, 죽기를 각오한 민중 봉기의 심각성·필연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 (2) 작가는 이 소설에서 비극적 결함(tragic flaw)을 민중의 부정적 속성에 전가하고 있다. 작가는 아테르타 망국이란 비극의 책임을 민중의 어리석음, 경망함, 충동적인 속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 소설에 의하면 집정관 티라나투스(정·현신·민중의 화신이자 유능한 정치인)이다. 그에 반해 민중이란 모순 투성이의 사람들이다. 작가는 「민중」이란 말과 「군중」이란 말을 변별 없이 쓰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민중」 곧 「군중」은 잡연성이 심한 무리(rabblery)요 폭도(mob)다. 작가는 민중의 구성원으로 예술인·정객·선동가·상인 등에 창녀와 좀도둑을 넣고 군중을 결정적으로 움직인 것은 그들 창녀와 좀도둑들이었다고 하고 있다.

이 소설은 또 민중은 이기적인 무리요 무정형·무정전한 충동적인 무리라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에 의하면 시민집단은 노획한 정객에 이용당해 태평성대의 반석 같은 나라를 망하게 한 愚民이다.

4. 잘못된 역사관·세계관

작가는 이 소설이 시민 집단의 운동은 반드시 善意志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변혁은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체제옹호자·보수 반동주의자·전망이 결여된 작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소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모순을 안고 있게 된 원인은 그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는 「전망 결여」란 그에 대한 비판에 대해 자신은 있었던 일을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어도 「예언」은 안한다고 했다. 이는 그가 「전망결여」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는 작가에게 占卜의 秘術을 요구하지 않는다. 작가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생·세계·역사의 진상을 볼 수가 없다. 작가는 눈은 미래에까지 가 있어야 한다. 역사의식이란 역사지식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미래가 어떠해야 하며 또 그렇게 되어 갈 것인가를 내다 볼 수 있는 혜안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문열은 視覺型의 작가다. 그는 현재에 서서 과거와 현재만 본다. 이 작품을 발표한 80년대 초(1982년 발표)에 서서 한국 역사의 과거와 현재를 본다면 5·17 광주 민주화 운동은 비극적 소모·더한 악화를 부른 변화 추구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나아가 내일에 서서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도 어리석은 일도 아니었다함을 알 수 있다. 하나 하나의 민중운동의 좌절은 실패 이닌 작으면서도 큰 성공들의 축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문열에게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눈이 없다. 그의 다른 소설 〈구로아리랑〉은 여공들을 의식화 된 운동권 대학생들, 사기꾼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바보들로 그리고 있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민중을 교활한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문열이 만약 계속해서 이런 유의 소설을 쓴다면 그는 보수반동이란 비난·현실에 안주하는 이기적 상업주의의 이야기꾼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